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보철물 장착후 골유착성 임플란트 주위의 치조골 소실에 관한 방사선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보철과 전공 양순봉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후 골유착성 임플란트 주위의 치조골 소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치과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특히, 부분무치악 환자에서 Brånemark 임플란트와 IMZ 임플란트에 보철물 장착시를 기준으로하여 12개월, 24개월후 정기적으로 촬영된 구내방사선 사진에서 디지털 방법으로 골변화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체 임플란트에서 골소실량은 보철물 장착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2개월 후에는 1.755 mm, 24개월 후에는 1.921 mm이었다($p < 0.05$).
2. Brånemark 임플란트는 보철물 장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12개월 후에는 1.831 mm, 24개월 후에는 1.833mm이었다($p < 0.05$).
3. IMZ 임플란트는 보철물 장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12개월 후에는 1.578 mm, 24개월에는 2.097 mm이었다($p < 0.05$).
4. 임플란트 두 종류간의 골소실량을 보철물 장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시, 12개월 후의 골소실량은 IMZ 임플란트가 Brånemark 임플란트에 비해 적었으며, 보철물 장착 12개월 후 1년간 진행된 골소실량은 Brånemark 임플란트가 적었다($p > 0.05$).

이상의 결과로 임플란트 주위의 치조골 소실은 보철물 장착후 1년간 진행되고 그 이후 안정됨을 보이므로, 보철물 장착후 1년간은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